



14. 임신돈 군사사육을 왜 해야 하나요? 관련 정보와 군사시설에 대해 알려주세요.


■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축산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신규로 가축 사육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"교배한 날부터 6주가 경과한 임신돈은 개별적으로 가두어 사육하는 틀(스톨)에서 사육하여서는 아니되며, 임신돈이 자연스러운 자세로 일어나거나 눕거나 움직이는 등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군사 공간에서 사육하여야 한다."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기존 농가는 10년의 유예기간을 갖고, 2030년부터 적용이 됩니다.

* 축산법 시행령: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(제14조제2항 및 제14조의2제2항 관련)

* 축산법 시행규칙: 축산업허가자 등의 준수사항(제30조 관련)

■ 임신돈 군사시설 종류와 장·단점

시설	장점	단점
 <p>반스톨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존시설에서 전환이 간단하며, 관리가 용이함 모든 모돈이 동시에 사료 섭취 가능 별도의 시설적용 훈련 필요 없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모돈의 개체관리가 어려움 사료급이 시 사료를 다 먹은 모돈이 먹고 있는 모돈을 공격할 수 있음
 <p>자유출입스톨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임신돈의 의지에 따라 개별스톨 및 공용공간 이동 가능 수동으로 스톨 잠금이 가능하며 이상 개체의 치료 및 관찰 가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입식 전 시설에 적응할 수 있는 훈련 필요 모돈 1마리당 자유출입스톨 1대 설치 시, 타 군사사육 대비 공용공간이 좁음
 <p>자동급이시스템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시스템 1대당 모돈 20~40마리 수용 가능 무선인식을 활용한 개체별 사료급이량 설정 가능 급이 모니터링을 통하여 이상 개체 조기에 조치 가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입식 전 시설적응 훈련 및 관리자 교육 필요 백신, 치료 등 작업 시 모돈 보정이 어려움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설치비용이 저렴하며, 설계가 간단하여 기존 시설을 개조하기 쉬움 • 모든 모돈이 동시에 사료 섭취 가능 • 별도의 시설적용 훈련 필요 없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모돈의 개체관리가 어려움 • 사료허실이 많음 • 사료 급여 시 모돈의 공격 위험성이 큼 • 백신, 치료 등 작업 시 모돈 보정이 어려움
<p>바닥금이 시설</p>		

【 양돈과 】